

6월 Market Index			
코스피	8051.33	코스닥	847.07
	(-37.01)		(-21.34)
금리	3.776	환율	1532.30
	(+0.028)		(+6.70)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전면 배치
고부가 영토 선점 전략
04



“가짜뉴스 꼼짝마!” AI 탐정 활동 개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AI 콘텐츠 관리 역량 주목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는 게시자를 겨냥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플랫폼들의 자율 운영정책과 AI 기반 콘텐츠 관리 역량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요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허위정보 여부를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AI 기반 콘텐츠 관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도 마련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이 모든 게시물을 직접 검토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가 위험 게시물을 우선 선별하고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필수

휴대전화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로 대포폰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은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6일 서울 중구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현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로 대포폰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은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6일 서울 중구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운영 인력이 최종 판단하는 형태의 콘텐츠 관리 방식으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에는 자율 운영 정책 마련과 신고 체계 구축,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의 관리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들은 이미 AI와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스팸과 불법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콘텐츠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 운영 책임이 강화되면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들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마신러닝 기반 콘텐츠 탐

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메타 역시 AI 기반 위험 콘텐츠 탐지와 외부 사실확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음성까지 분석하는 기술 경쟁도 빨라지는 추세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광주 군공항’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 내 전담기구 설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리
“250만평 규모 부지 확보
평탄화로 공사기간 최소화”

청와대가 광주 군공항 일대를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청와대 내 전담기구도 설치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6일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3대 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업 의견, 교통·물류 환경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종합 생산 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어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와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정

도로 규모가 충분하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공항의 조기 이전도 추진된다.

강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반도체 생산공장)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관산업단이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국가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캐나다 잠수함 사업 승패 초읽기

韓 시간 오늘 새벽 발표 예상
해군운용 잠수함 12척 건조
국내방산 단일계약 최대수출

캐나다차세대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한화오션이 대항방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돼 한국이 따낼 경우 단일 계약 기준 국내 방산 수출 최대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 다만 캐나다가 잠수함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관계, 산업협력 효과, 장기 운용 부담까지 함께 따지고 있어 경쟁사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선정되거나 분할 발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각) CPSP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새벽 발표가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최종 계약 체결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절차로 이후 세부 조건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

업이다. 한화오션은 검증된 KSS-III 계열 잠수함과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캐나다 현지 산업협력 안을 앞세워 수주전에 대응해 왔다. 한국 측은 조선·방산뿐 아니라 에너지, 수소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패키지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수주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0대50”이라고 답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자체 경쟁력과 산업협력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동맹 관계와 장기 운용 체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독일은 발표를 앞두고 수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TKMS의 비스마르 조선소를 찾아 “독일 연방 정부 전체가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스스로 거취 판단하는 중”
▲한병도 ‘이민주 합성음란물 피해’에 “중앙당 차원 법적 대응” /사진 뉴시스

▲국회 국방위, 野 불참 속 첫 전체회의…與 김병주 간사 선임
▲장윤기 차량 핵심 증거물 ‘케이블타이’ 인멸…경찰, 미압수 경위 수사

▲경찰 “반성한다” 구속 안 한 사이, 50대는 옛 연인 살해
▲“잘 보면 안 낡는다” 통념 깨졌다…고소득 女출산 긍정적